

대학 영어 읽기 수업에서의 활동 효과: 대학생들의 관점 *

백지원
(가톨릭 대학교)

Paek, Jiwon. 2009. The Preference and Effectiveness of activities in English Reading Class: From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s. *Linguistic Research*, 26(2), 49-6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 to and effectiveness of activities implemented in reading classes. The participants were 153 freshman students taking two-hour English reading class every week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urvey.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strongly favored the instructor's teaching, and vocabulary and sentence quiz along with the opportunity of their presentation. The participants considered listening to reading text relatively effective for improving English and less effective for text comprehension. The text-information reorganization activity was considered the least effective for either improving English or text comprehens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summary, the participants positively evaluated this activity for improving English and text comprehension. The more proficient the participants are, the more positively they evaluated the activity. The participants preferred individual activities to cooperative group activities such as summary and text-information reorganization. Give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to consider how to implement a variety of activities in college reading cla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eywords reading class, activity preference, activity effectiveness,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한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 영어 읽기 능력은 다른 어떤 언어적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공수업도 영어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영어로 쓰인 전공서적을 읽을 수 있는 영어 읽기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목표 언어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외국어 학습 환경(EFL)에서는 읽기는 학습자가 단어와 문법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쓰거나 말하기의 모델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 읽기는 이해가능 언어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하고(Krashen, 1993)있으며 또한 Carrell(1998)

* 본 논문을 위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또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은 읽기능력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전반적인 언어능력 발달에 공헌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영어교육에서도 영어 읽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읽기 지도 모형(Jeongsoon Joh & Seonghee Choi, 2001), 읽기 전략(Kyung Rang Lee, 2007; Mi-Jeong Song, 1999), 협동학습(신인숙, 2005; Kyunghee Choi, 2005; Yoon-Hee Soh, 2000)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어 읽기 수업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 중 하나가 읽기 전략 교수법 분야이다(박영예, 1999; Kyung Rang Lee, 2007; Mi-Jeong Song, 1999). Mi-Jeong Song(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자의 변인 요소 중에서 읽기능력은 학습자의 읽기전략 사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영예(1999)도 연구에서 초인지 전략, 어휘인지 전략뿐 아니라 구조이해 전략, 정보탐색 전략, 추측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의 읽기 점수가 제한적인 읽기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나경희와 이선(2005)의 상호작용 읽기전략을 통한 대학생들의 독해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의미 확실히 하기'였으며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어휘에 대한 의미과악에 보냈으며 보다 높은 단계의 '요약하기' 또는 '예측하기'의 전략사용에는 많은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한 Kyung Rang Lee(2007)는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읽기전략을 이용하는데 익숙하게 된 후 읽기 전략에 대한 태도 변화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읽기 수업의 또 다른 경향은 협동학습 활동 사용이라 할 수 있다. 신인숙(2005)은 소규모 그룹 활동에서 협동학습을 이용하면 읽기 실력이 향상되며 효과 있는 협력학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대화'요인을 꼽았다. 즉 대화를 많이 하고 구성원의 적절한 참여가 협력학습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Kyunghee Choi(2005)는 구성원 중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자가 없을 경우 협동학습의 결과가 약화되고 성패여부가 주어진 과업의 난이도에 달려있다고 보고했다. Jae-Suk Suh(2006)의 연구에서 협력학습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안감을 낮추고 다양한 읽기 전략에 노출시켜 기존의 교사중심의 수업을 좀 더 흥미 있고 활동적이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Youngjoo Bang(2002)는 협력 학습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교사중심의 비교집단 학생들에 비해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는 별도로 Shim(2004)은 읽기와 쓰기는 같이 가르쳐야 함을 주장하는 등 다른 언어 기술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교수법 또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수업모형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중,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 수와 대학입시의 영향 혹은 대학교 읽기 수업에서도 읽기를 개별적인 학습으로 여기는 인식으로 인하여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교수자 중심의 강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제로 대학교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선호하고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활동에 관한 연구(정수경, 2008)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양영어 읽기 수업에서 개인활동, 협력활동, 그리고 교수자 위주의 강의 방식 등 읽기 수업에서 활용된 활동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즉 대학생들은 어떤 활동이 텍스트 이해와 영어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지, 학생들의 활동 효과성 인식과 선호 활동과는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그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수업 모형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영어²⁾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총 참여자 수는 153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80 대 20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학생들의 소속 학부는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국제학부, 생활과학부, 자연과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반의 평균 학생 수는 34명이지만 자료 수집이 해당 학기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학생의 결석으로 한반 평균 30.4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모두 같은 교수에게 수업을 들었다.

2.2 연구 배경²⁾

본 연구가 이루어진 대학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16주에 걸쳐 영어 수업이 이루어졌고 교재는 Oxford 출판사의 Selected Readings Upper-Intermediate가 사용되었다.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각각 4단원씩 집중적 읽기 수업(intensive reading)으로 진행되었다. 영어²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은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험문제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렀으며 시험은 단어5문제, 문법 2문제,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형태로 바꾸어 채우는 단답식 5문제, 주어진 지문의 이해력 측정을 하는 20문제와 마지막에 한국어로 해석하는 2문제 총 34문제로 이루어져있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문제 구성은 단답식 문제 10개와 2개의 해석문제를 제외하면 4개의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사지선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본 대학에서는 모든 영어읽기 수업이 동일한 수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시험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 교수자만 다를 뿐이어서 다양한 활동을 수업시간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르는 형태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 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학기 초에 미리 나누어준 영영 단어

1) 본 대학에서 1학기에 영어¹을 듣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은 2학기에 영어²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영어¹, 영어² 수업 모두 읽기 위주의 수업이며 영어² 수업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용영어¹이라는 말하기 위주의 수업을 같이 수강하고 있다.

2) 심사위원 중 한명이 제목을 연구 절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 연구는 실험적인 연구가 아니었고 이 부분은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받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연구배경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에서 12개의 단어 퀴즈를 보며 한 단원을 마칠 때 교수가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 문장 5-7개 중에서 한글 해석 및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형태로 바꾸어 괄호 채우기 등의 문장퀴즈를 보았다. 학생들은 총 10번의 퀴즈를 보았으며 이 중에서 6번의 퀴즈는 단어와 문장을 같이 보고 2번은 단어퀴즈만 2번은 문장에 관한 퀴즈만을 보았다. 또한 학생들은 첫 시간에 배정받은 단원을 미리 준비하여 한 학기에 1번의 발표를 하였으며 단원의 특성에 따라 영어로 단원 요약 활동을 2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본문에서 언급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어서 본문을 재구성하는 활동 2번에 참여하였다. 요약 활동의 경우 교수가 그 다음 시간에 몇 개의 요약샘플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은 교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바꾸어 쓰기(paraphrase)를 하도록 지시 받았으며 4명의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들은 제출한 요약문에 관해서 문법적인 오류는 간접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내용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 그 다음시간에 수정 작업을 한 후 다시 제출하였다. 이 수정 작업은 개별 학생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할 때 단원 전체를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교재를 보면서 혹은 교재를 덮은 채로 듣기를 하였다. 교수는 매 단원을 마칠 때 해당 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같은 문법 사항을 모아 다시 문법 설명을 하였으며 이 외 교수 강의로는 학생발표 후에 문단별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핵심문장 찾기, 한국어로 해석 후 부연 설명, 및 문법, 숙어, 단어 설명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단 요약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수업은 한국어로 이루어졌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택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영어2 수업에서 사용된 활동을 중심으로 선호도와 활동 효과성을 묻는 다중 선택형과 5단계 척도 문항으로 모두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한 학기 동안 학생활동의 관찰과 일부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효과성을 묻는 문항은 주어진 보기 외에도 기타와 다른 방식의 운영을 묻는 개방형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 부분을 기술한 학생의 수는 총 153명중에서 질문 당 평균 25에서 30명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연구자가 참석하여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 설명을 하고 질문에 직접 대답하였다. 설문결과는 다중 선택형과 5단계 척도 문항의 응답 자료를 빈도 분석하였으며 다중 응답의 경우에는 총 응답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분석과 참여자수를 기준으로 한 다중응답 분석 두 가지를 다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활동 선호여부

학생들에게 영어2 수업에서 사용된 활동들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묻는 문항에서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 총 참여자 수 153명에게서 365응답이 도출되었다. 학생들의 선호도는 교수의 설명 및 해석 (23.8%), 단어 퀴즈(16.2%), 영어 문장 듣기(9.9%), 발표(9.3%)와 단원별 문제 풀기(9.3%), 문장 퀴즈(8.5%), 유사 문법 종합 설명(8.2%) 그리고 내용 재구성 활동과 요약 활동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그룹 활동에 비해 개인별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설명 및 해석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등 읽기 수업에서 많은 부분을 교수의 설명에 의존하는 의존적 학습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의 설명 및 해석 활동을 총 참여자 153명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영어 수업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활동 보다는 교수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교수강의 활동의 효과성 부분에서 서술하기로 하겠다.

표 1 수업 활동 선호도

활동	빈도	%	다중응답 %
영어 문장 듣기	36	9.9	23.58
단어 퀴즈	59	16.2	38.56
문장 퀴즈	31	8.5	20.26
발표	34	9.3	22.22
내용 재구성 활동	27	7.4	17.65
요약 활동	27	7.4	17.65
교수의 설명 및 해석	87	23.8	56.86
문법 종합 설명	30	8.2	19.61
단원별 문제 풀기	34	9.3	22.22
	365	100	

3.2 활동의 도움여부

3.2.1 활동의 단원 이해력 향상 여부

문항 2와 3은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활동 선호도가 아닌 단원 이해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그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그 결과는 표2와 3과 같다.

표 2 활동의 단위 이해력 향상 도움 여부

활동	응답수	%	다중응답 %
영어 문장 듣기	13	2.2	8.5
단어 퀴즈	90	15.5	58.82
문장 퀴즈	90	15.5	58.82
발표	82	14.1	53.59
내용 재구성 활동	39	6.7	25.49
요약 활동	70	12.0	45.75
교수 강의	101	17.4	66.01
문법 종합 설명	34	5.8	22.22
단원 문제 풀기	63	10.8	41.18
	582	100	

단위 이해력에 도움을 주는 활동에 관한 문항은 중복 응답으로 총 582응답 중 교수의 설명 및 해석(17.4%) 활동이 단위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퀴즈, 발표 등이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요약 활동은 12%로 답하여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요약 활동이 단원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중 응답 분석을 통하여 보면 교수의 설명 및 해석, 퀴즈, 발표가 단위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고 요약 활동도 대략 과반수의 학생들이 단위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영어 문장 듣기, 내용 재구성 활동과 종합 문법 설명은 단위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0%에 못 미친다. 영어로 단위 듣기는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활동이었다.

표 3 활동의 단위 이해력 향상 도움 정도

활동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영어 문장 듣기	12 (7.84)	19 (12.42)	86 (56.21)	32 (20.92)	4 (2.61)	153 (100%)
단어 퀴즈	1 (0.65)	1 (0.65)	21 (13.73)	97 (63.40)	26 (16.99)	153 (100%)
문장 퀴즈	0 (0.00)	2 (1.31)	22 (14.38)	96 (62.75)	26 (16.99)	153 (100%)
발표	0 (0.00)	4 (2.61)	20 (13.07)	83 (54.25)	36 (30.07)	153 (100%)
내용 재구성	3 (1.96)	9 (5.88)	61 (39.87)	74 (48.37)	6 (3.92)	153 (100%)
단원 요약	3 (1.96)	8 (5.23)	45 (29.41)	84 (54.90)	13 (8.50)	153 (100%)
교수 강의	0 (0.00)	1 (0.65)	14 (9.15)	78 (50.98)	60 (39.22)	153 (100%)

종합 문법 설명	0 (0.00)	6 (3.92)	62 (40.52)	74 (48.37)	11 (7.19)	153 (100%)
단원 문제 풀기	1 (0.65)	4 (2.61)	51 (33.33)	85 (55.56)	12 (7.84)	153 (100%)

학생들이 각 활동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도를 5단계 척도로 응답한 결과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단어퀴즈(80.39%), 문장 퀴즈(79.74%), 발표(84.32%), 교수강의(90.2%)의 경우는 대략 80%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다른 활동의 경우는 대체로 50%정도에 머물러 긍정적인 응답과 그렇지 않은 응답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활동 중에서 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본문 내용을 영어로 듣는 활동은 단원 이해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6%에 달하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한 활동에 속한다.

위의 두 문항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로는 학생들이 단원의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활동은 교수 강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교수의 강의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읽기 수업에서 교수의 강의 능숙도와 영어 실력이 학생들의 내용 파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내용 재구성 또는 단원 요약 활동 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그룹 활동은 상대적으로 퀴즈 발표, 교수 강의만큼 단원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3.2.2 활동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 여부

문항 4번과 5번은 영어 읽기 수업에서 사용된 활동들이 얼마나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지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 이었으며 이는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고르는 문항과 그 도움의 정도를 물어 보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묻는 문항에서는 표4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 활동의 전반적 영어 실력 향상 도움 여부

활동	응답수	%	다중응답 %
영어 문장 듣기	30	5.2	19.61
단어 퀴즈	105	18.0	68.63
문장 퀴즈	87	14.9	58.86
발표	83	14.3	54.25
내용 재구성	17	2.9	11.11
단원 요약	73	12.5	47.71
교수 강의	103	17.7	67.32
문법 종합 설명	61	10.5	39.22
단원 문제 풀기	23	4.0	15.03
	582	100	

이 문항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항목은 단어 퀴즈(18.0%), 교수 강의(17.7%), 문장 퀴즈(14.9%), 발표(14.3%), 요약활동(12.5%), 문법 종합 설명(10.5%), 영어 문장 듣기(5.2%), 단원 문제 풀기(4%), 내용 재구성 활동(2.9%)의 순으로 나타났다.

3.2.1의 단원 이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묻는 문항에서와는 달리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가져오는 활동은 단어 퀴즈로 총 응답빈도 105를 차지하여 교수강의(응답빈도 103)보다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학생 스스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문장 퀴즈나 발표 또한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룹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이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어 문장 듣기 활동과 문법 종합 설명은 단원 이해에는 가장 도움이 안 되는 활동으로 응답하였지만 영어 실력 향상에는 다중응답 처리 방식으로는 각각 19.61%와 39.22%로 응답하여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각 활동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관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활동의 영어 실력 향상 도움 정도

활동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영어 문장 듣기	0 (0.00)	2 (1.31)	22 (14.38)	96 (62.75)	33 (21.75)	153 (100%)
단어 퀴즈	2 (1.31)	2 (1.31)	21 (13.73)	94 (61.44)	34 (22.22)	153 (100%)
문장 퀴즈	0 (0.00)	4 (2.61)	17 (11.11)	101 (66.01)	29 (18.95)	153 (100%)
발표	0 (0.00)	0 (0.00)	22 (14.38)	84 (54.90)	47 (30.72)	153 (100%)
내용 재구성	2 (1.31)	7 (4.58)	71 (46.41)	67 (43.79)	6 (3.92)	153 (100%)
단원 요약	3 (1.96)	8 (5.23)	43 (28.10)	73 (47.71)	26 (16.99)	153 (100%)
교수 강의	1 (0.65)	4 (2.67)	41 (27.33)	89 (52.29)	16 (34.64)	153 (100%)
종합 문법 설명	0 (0.00)	4 (2.67)	41 (27.33)	89 (59.33)	16 (10.67)	150 (100%)
단원 문제 풀기	2 (1.34)	4 (2.68)	60 (41.27)	70 (46.98)	13 (8.72)	149 (100%)

단원 이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와는 달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영어 문장 듣기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84.5%로 나타나 학생들이 영어 문장 듣기가 듣기 능력의 향상을 시켜줌으로써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났다. 내용 재구성 활동, 단원 문제 풀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70%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원의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을 묻는 문항 모두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와 문장 및 단어 퀴즈, 발표 등을 가장 효과가 높은 활동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퀴즈나 발표³⁾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존재하지만 학생 스스로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이해된다. 영어2 수업에서 소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진 요약 활동은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이나 단원 이해력 향장에서 과반수의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지만 교수 강의나 퀴즈, 발표와 같이 교수에 의존하는 학습형태나 혹은 학생 스스로 개인적인 준비를 하는 활동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각 활동의 효과적인 부분

설문지의 나머지 문항들은 각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가에 관한 것으로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수응답 외에도 보기에 없는 기타 의견이나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면 좋겠는가에 관한 추가적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3.1 영어 문장 듣기

단원 시작 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교재를 덮고 혹은 교재를 같이 읽으면서 전체 단원을 영어로 들었다. 본 수업에서 사용된 교재가 중상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길이 면에서도 3쪽 혹은 그 이상이었다.

표 6 영어 문장 듣기

효과	빈도	%	다중응답 %
발음 인식	93	45.1	60.78
듣기 능력 향상	32	15.5	20.92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51	24.8	33.33
별로 도움이 안 됨	30	14.6	19.61
	206	100	

영어 문장 듣기 활동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20%에 이르렀다.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발음을 알 수 있다(60.78%)'이었으며 20%에 이르는 학생들이 듣기 능력 향상을 가져 온다고 응답하여 정숙경(2008)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본문 내용을 원어인 음성으로 듣는 활동을 가장 선호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기타 의

3) 퀴즈나 발표의 경우 평소 점수로 계산되어 최종 학점을 산출할 때 20%를 차지하여 학점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견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원인이 본 연구 참여자들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시간이 길어 도움이 안 된다고 기술한 데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다. 학생들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전체 단원을 한 번에 듣는 게 아닌 '문단 나누어 듣기' 방식을 제안한 경우가 총 응답 27중에서 9개로 나타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3.2 단어 퀴즈

단어 퀴즈는 학생들이 선호도에서도 교수 강의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단원 이해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도가 교수 강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그 단원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어를 영어로 설명해 놓거나 동의어를 적어놓은 단어장을 미리 학기 초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때 단어 퀴즈를 보았다.

표 7 단어 퀴즈

효과	빈도	%	다중응답 %
텍스트 이해에 도움	119	47.6	77.78
모르는 단어 암기	43	17.2	28.10
영영 동의어 암기	27	10.8	17.65
설명에 나와 있는 단어 학습 기회	59	23.6	38.56
별로 도움이 안 됨	2	0.8	1.31
	250	100	

단어 퀴즈는 미리 단원에 나오는 단어를 외울 기회를 제공하여 '텍스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생이 77.78%에 달했고 단어 설명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비록 학생들의 기타 응답에서 매 단원 퀴즈가 번거롭고 귀찮지만 텍스트 이해를 높여주고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여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휘능력을 갖추는 것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3.3.3 문장 퀴즈

단어 퀴즈와 더불어 매 단원이 끝날 때 구문상으로 복잡한 문장이나 중요한 문법 사항이 들어 있는 문장을 5개에서 7개 선정하여 문장 해석과 단어를 올바른 형태로 바꾸어 괄호 채우기 등의 형태로 실시한 문장 퀴즈도 학생들이 그 효과 면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은 퀴즈를 봄으로서 자신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확인하는 과정(다중응답에서 75.16%)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퀴즈에서 '틀린 부분에 대한 피드백'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퀴즈를 볼 때 틀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하는 것이 교수자에게 시간상의 부담을 주지만 학생들이 나중에 자신이 틀린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능동적 학습자로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8 문장 퀴즈

효과	빈도	%	다중응답 %
문장 구조 학습	54	18.2	35.92
문장 이해 정답여부 확인	115	38.7	75.16
문법 사항 학습	40	13.5	26.14
틀린 부분에 대한 피드백	82	27.6	53.59
별로 도움이 안 됨	6	2.0	3.92
	297	100	

3.3.4. 학생 발표

모든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하도록 되어있었고 매 발표는 퀴즈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평소 점수에 포함이 되었다.

표 9 발표

효과	빈도	%	다중응답 %
자율적 연습 기회	104	35.86	67.97
발표 단원은 이해력 향상	133	45.86	86.93
영어 발음을 해보는 기회	28	9.66	18.30
불안감에 집중에 장애	24	8.28	15.69
별로 도움이 안 됨	1	0.34	0.65
	290	100	

학생들이 가장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발표 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 이해력이 높고 (86.93%) 학생 스스로 자율적 연습 기회(67.97%)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3.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발표는 교수 강의, 단어 및 문장 퀴즈에 이어 단원 이해력을 높이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불안감에 집중에 장애를 가져 온다는 학생도 일부 있어 사용에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3.3.5 내용 재구성

학생들은 장점과 단점이 단원 전체에 걸쳐 서술된 단원의 경우 이를 장단점 별로 정리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 활동은 단원 이해력 부분에서나 영어 실력 향상 면에서나 학생들에게 그 효과성을 가장 낮게 평가 받은 활동이었다. 기타 의견이나 다른 운영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이 나타난 응답으로는 이를 개별 활동으로 운영하거나 숙제 제출

형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설문지와 별도로 실시된 사전 관찰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이 활동이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점, 단점을 분담하여 자신이 맡은 부분만을 찾아서 정리하여 다른 학생들과 교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학생들의 토론이나 의견 교환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활동이었다.

표 10 내용 재구성

효과	빈도	%	다중응답 %
포괄적 이해	84	33.7	54.90
친구의 도움	39	15.7	25.49
토론을 통한 이해력 증가	44	17.7	28.76
지루하지 않음	28	11.2	18.30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음	36	14.5	23.53
별로 도움이 안 됨	18	7.2	11.76
	249	100	

3.3.6 단원 요약

단원 요약 활동은 내용 재구성 활동 외에 유일한 그룹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선호도 면에서나 이해력 향상 또는 영어 실력 향상에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타 의견이나 다른 방법을 묻는 질문에 25명 중 15명의 학생이 단원 요약을 개별 활동 또는 원하는 사람과 그룹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고사 성적⁴⁾이 50점(60점 만점)이상인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요약 활동을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응답한 반면 35점 이하의 학생들은 단원 요약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영어 실력에 따른 도움의 정도나 선호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영어로 단원을 요약하는 활동의 효과나 선호도를 좌우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표 11 단원 요약

효과	빈도	%	다중응답 %
포괄적 이해	74	17.41	48.37
능동적 학습	48	11.29	31.37

4) 논문심사에서 이 부분에 관한 부연 설명을 요청하였는데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 5개 학부 학생들 사이에서 요약활동을 선호 면에서 학생들의 전공 혹은 성별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 활동의 선호도 차이로 유일하게 나타난 것이 중간고사 성적 차이였으므로 이를 그룹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강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전공학부에 따라 분반이 되었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중간고사 결과가 유일한 경우였다. 중간고사 성적이 50점이 넘는 이 학생은 이 집단 안에서 '상,' 50에서 45점 사이의 학생들은 '중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중간고사 성적이 35점 이하의 학생들은 영어 능력이 '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써보기 통한 문법에 주의	100	23.53	65.36
지루하지 않음	16	3.77	10.46
쓰기에 자신감 향상	10	2.35	6.54
친구로부터의 도움	51	12.0	33.33
본문 전개 방식에 주의	41	9.65	26.80
글의 요지 파악	78	18.35	50.98
별로 도움 안 됨	7	1.65	4.58
	425	100	

이 활동을 다중응답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포괄적인 이해(48.37%), 영어 글쓰기를 통한 문법에 주의(65.36%)를 기울이게 해주고 글의 요지(50.98%)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정도에 그쳤다. 또한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30%정도에 그쳤고 기타 의견에서 10명이 그룹 요약 활동이 그룹원간의 협동보다는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일부 잘하는 학생에게 의지한다고 응답하였다.

3.3.7 교수 강의

교수 강의의 경우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단원 이해력이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된다고 응답한 활동이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3명에 지나지 않으며 문장 하나하나의 정확한 해석(69.93%)을 알 수 있고 문장 안에서 문법 사항을 학습(58.82%)하거나 단어의 정확한 의미나 사용(50.98%)을 알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 5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교수의 강의를 하향식 읽기 방법보다는 상향식 읽기 교수법을 이용하고 있고 상향식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의견에서 '대략적인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다'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뜻과 교수 해석이 다르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교수 강의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비하기 위해 내용유추, 핵심 내용 찾기, 내용 예측 등의 읽기 전략에는 익숙하지만 문장 안에서 문법 적용이나 전반적인 글의 구조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상향식 교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교수의 강의를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교수 강의

효과	빈도	%	다중응답 %
문장의 정확한 해석	107	26.2	69.93
문장을 통한 문법 사항을 학습	90	22.0	58.82
글의 구조 및 요지 파악	70	17.1	45.75
관용어 학습	61	14.9	39.87
단어의 정확한 의미, 사용 학습	78	19.1	50.98
별로 도움이 안 됨	3	0.7	1.96
	409	100	

3.3.8 문법 종합 설명

문법 종합 설명은 교수 강의에서 문장 해석과 설명에 더해 분사구문, 과거분사, 현재분사, 관계 대명사 명사절, 간접 의문문등 각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법 사항을 모아 예문과 함께 종합적으로 단원 마지막에 설명을 한 활동을 의미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극히 소수지만 영어 실력 향상 면에서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효과를 묻는 문항에서도 '해당 문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와 '문법 이해 강화'를 가져온다는 보기에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기타 응답의 경우에 '교수의 문장 해석을 통한 문법 설명이 더 좋다'고 하여 교수가 문장을 해석하는 동안 문법사항을 문장에 적용시켜 설명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개별 문법 사항을 알고 있지만 이 문법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 지에 더 관심이 있으며 이는 위의 교수 강의가 '문장을 통한 문법사항 학습이 효과적이다'라고 58.82%의 학생이 응답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다.

표 13 문법 종합 설명

효과	응답수	%	다중응답 %
부분적으로 습득한 문법 종합적 비교	53	24.9	34.64
해당 문법에 주의	84	39.4	54.90
문법 이해 강화	68	31.9	44.44
별로 도움이 안 됨	8	3.8	5.23
	213	100	

3.3.8 단원 문제 풀기

단원 문제 풀기 활동은 단원마다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풀고 풀이 하는 활동에 해당된다. 이 활동은 단원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 효과로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확인 하는 과정(75.82%)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표 14 단원 문제 풀기

효과	응답수	%	다중응답 %
내용을 포괄적으로 확인	116	58.59	75.82
문장의 정확한 뜻 확인	20	10.10	13.07
빠른 시간 안에 정보 찾기	52	26.26	33.99
별로 도움이 안 됨	10	5.05	6.54
	198	100	

선호도, 이해력 향상, 영어 실력 향상과 관계된 질문,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한 본 연구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교수 강의 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퀴즈, 발표 등이 읽기 수업에서 이해력과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평가하였고 선호도 면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수 강의 활동은 특히 단원 이해나 영어 실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교수 강의가 한글 번역 또는 구문 설명을 많이 다루고 있어 정확한 문장구조 파악에 미숙한 학생들에게 문장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정숙정(2008)의 연구 결과에서 교수 강의 활동이 대학생들의 활동 선호도면에서는 높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교수자에게 바라는 활동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개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더욱 선호하고 협동적인 그룹 활동을 개별 학습 활동에 비해 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기타 의견에 그룹 활동을 개별 활동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그룹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일부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의존한다는 이유였다. Onwuegbuzie(2001)의 연구에서도 그룹 협동 학습 활동이 동료에게 의존하는 형태나 혹은 동기부여나 책임감에서 그룹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 즉 영어능력에 따라 활동의 효과성이나 선호도 면에서 차이가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 영어 능력으로 볼 때 ‘중’ 또는 ‘중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원요약을 할 때 참여자들은 본문에서 사용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으므로(paraphrase) 이에 따라 영어 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원 요약 시 바꾸어 쓰기 방식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의 전반적이 영어능력이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영어2 수업이 같은 시험문제를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이 시험결과가 학생들의 학점을 결정하게 된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즉 교수 강의, 퀴즈, 발표의 경우 시험성과 직 접적인 연결이 되는 활동이었고 이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적인 활동이라 여겨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는 요약, 영어 듣기, 내용 재구성 활동들이 시험과 학점

과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데서 교수 강의, 퀴즈, 발표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는 테스트의 효과(backwash effect)로 볼 수 있는데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모든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이 이 테스트 준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Hughes, 1989), 이 점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 선호도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영어 집중적 읽기 수업에서 실시된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교 1학년 교양영어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이 활동들에 대한 선호도 및 효과성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수 강의, 퀴즈, 발표 등의 활동을 단원 이해력이나 영어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고 선호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교수 강의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퀴즈, 발표 활동들에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협동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그룹 활동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으며 이를 개별 활동으로 변경해 실행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또한 단원 내용을 원어민 음성으로 듣는 활동은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단원 이해력 향상에는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어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문단별 나눠 듣기를 희망하는 기타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대학 읽기 수업에서 그룹 활동과 개별 활동의 적절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특히 단원 요약 활동에 있어서 본문의 문장을 그대로 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 쓰기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상'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바꾸어 쓰기 활동이 도전해 볼 만한 활동으로 간주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효과나 선호도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읽기와 듣기를 결합하는 교수법에 있어서 본문의 길이와 학생들의 집중 시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원 이해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나눠 듣기 혹은 반복 듣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대학의 교양영어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느냐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특정 대학의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어 대학생들이 원하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인 그룹 활동을 개별 활동에 비해 덜 선호하는 것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또한 그룹 활동 수행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참여 방식과 인식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나경희, 이선. 2005. "상호작용 읽기전략을 통해서 본 한국 대학생들의 독해과정에 관한 연구". 『영어어문교육』 27(4), pp.209-234.
- 신인숙. 2005. "영어 읽기 협력학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분석". 『응용언어학』 21(1), pp.325-239.
- 박영예. 1999. "대학생들의 독해 전략에 대한 분석". 『응용언어학』 15(2), pp.137-158.
- 정숙경. 2008. "대학 영어독해 수업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위한 행동연구". 『영어교육연구』 20(2), pp.243-272.
- Bang, Youngjoo. 2002. The use of collaborative work in a college EFL reading classrooms. *English Teaching* 57(3), pp.145-169.
- Carrell, P. L. 1988. Some causes of text-boundedness and schema interferences in ESL reading. In P. Carrell, J. Divine, & D. E. Eskey (Eds.),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pp. 101-11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Kyunghye. 2005. A sociocultural approach to understanding students' interaction in comprehending an English text. *English Teaching*, 60(4), pp.423-439.
- Hughes, A. 1989.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 Jeongsoon, & Choi, Seonghee. 2001. Towards innovative reading construction in English classrooms: A study of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Teaching*, 56(1), pp.3-29.
- Krashen, S. D. 1993.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 Lee, Kyoung Rang. 2007. Self-confidence fostering activities: Scaffolds for EFL learners' reading strategies. *English Language Teaching*, 19(4), pp.27-50.
- Onwuegbuzie, A. J. 2001. Relationship between peer orientation and achievement in cooperative learning-based research methodology cours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 pp.164-171.
- Shim, Jaewoo. 2004. Exploring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English Teaching*, 59(2), pp.59-74.
- Soh, Yoon-Hee. 2000. Small group dynamics in learning English: What matters? *English Teaching* 55(4), pp.269-293.
- Song, Mi-Jeong. 1999. Read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ability: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English Teaching*, 54(3), pp.73-95.
- Suh, Jae-Suk. 2006. A comparison of two English reading classes: With a focus on cooperative lear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pp.79-98.

백지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외국어교육원

E-mail: jwpaek@catholic.ac.kr

접수일자: 2009. 07. 27

수정일자: 2009. 08. 25

계재일자: 2009. 08. 31